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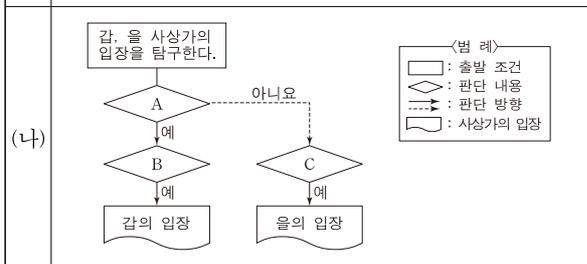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명(名)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명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으며,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돌 곳이 없게 됩니다. 정치를 덕으로써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모든 별들이 함께 그것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 ① 통치자는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 ② 통치자는 인(仁)과 예(禮)를 바탕으로 모든 형벌을 폐지해야 한다.
- ③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이상 사회의 구성원은 각자가 맡은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 ⑤ 통치자는 백성들이 무지(無知)하고 소박(素朴)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2. (가)의 중국 사상이자 감,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감: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고,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을: 치지가 격물에 있다는 말은, 나의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앎을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그 이치가 있다.



<보 기>

ㄱ. A: 양지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내재하는 선천적 앎인가?
 ㄴ. B: 앎[知]과 실천[行]은 본래부터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가?
 ㄷ. B: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지 않고도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ㄹ. C: 이치는 어디에도 실재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대상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한국 유교 사상이자 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감: 이(理)와 기(氣)는 본래 서로 결합하여 형체가 되고 서로의 기능이 조화되어 작용하게 된다. 진실로 이가 없는 기도, 기가 없는 이도 없으나 말한 바가 다르니 분별해야 한다.
 을: 이(理)는 기(氣)가 움직이면 거기에 타는[乘] 것이지 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이며, 발하는 것은 오직 기이다.

<보 기>

ㄱ. 감: 인간의 어떠한 감정도 기(氣)의 발(發)에서 비롯될 수 없다.
 ㄴ. 감: 순선무악한 사단을 제외해도 인간의 선한 감정이 존재한다.
 ㄷ. 을: 이(理)는 만물의 근본 원리이지만 스스로 작용할 수 없다.
 ㄹ. 감, 을: 이(理)와 기(氣)는 현실의 사물에서 분리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한국 사상이자 감,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감: 양적(洋賊)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말을 따르면 기존의 문화 전통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과 화친하자는 말을 따르면 인류가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을: 내가 동(東)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비록 천도(天道)이나 학인즉 동학(東學)이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서(西)를 어찌 동이라 이르며 동을 어찌 서라고 이르겠는가?
 병: 대개 동양인들은 형이상(形而上)에 밝기 때문에 그 도(道)가 천하에 우뚝하며, 서양인들은 형이하(形而下)에 밝기 때문에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 ① 감: 외세의 종교는 배척해야 하지만 정치 제도는 수용해야 한다.
- ② 을: 모든 혼란이 사라진 새로운 이상 사회는 내세에서 실현된다.
- ③ 병: 서양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배척하고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 ④ 감, 을: 국난 극복을 위해 유교적 인륜 도덕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 ⑤ 을, 병: 평등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수행자가 해야 할 세 가지 공부가 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공부[戒學], 청정한 선정(禪定)에 머무르는 공부[定學],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를 참되게 아는 공부[慧學]가 그것이다.

- ① 고통[苦]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② 윤회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선업(善業)을 많이 쌓아야 한다.
- ③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한다.
- ④ 만물에 고정된 상(常)이 없음을 깨닫고 애욕(愛慾)을 버려야 한다.
- ⑤ 팔정도(八正道)를 닦음으로써 내면에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6. (가)의 중국 사상이 가, 한국 사상이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가: 인(仁)으로써 사랑하고, 의(義)로써 미워하고, 예(禮)로써 사양하고, 지(智)로써 아는 것이 마음이며, 성(性)은 마음의 이치이다. 천지 사이의 이치는 사물이 생길 때 성이 되는데, 인의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을: 사람의 성이 선을 좋아함으로 인해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함으로 인해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사심(四心)이 있음으로 인해 사덕(四德)을 이룰 수 있다.

(나)

<범례>
 A: 가만의 입장
 B: 가,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ㄱ. A: 탁한 기질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ㄴ. B: 측은의 정(情)은 인(仁)의 덕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ㄷ. B: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ㄹ. C: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天理]이자 마음의 경향성이다.

- ① ㄱ,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고대 동양 사상이 가, 을, 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릇은 용기장이의 작위[僞]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의(禮義)는 성인(聖人)의 작위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을: 성인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는 일이 없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든든하게 한다.
 병: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작은 차이인데, 소인(小人)은 이 차이를 버리지만 군자(君子)는 이러한 차이를 보존한다.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인의예지는 그의 마음에 뿌리를 둔다.

- ① 가: 인간의 욕구는 성인의 예(禮)를 기준으로 적절히 충족되어야 한다.
 ② 을: 성인의 무위지치(無爲之治)는 백성의 이익이 늘어나게 한다.
 ③ 병: 인간의 본성이 선하므로 성인이 되는 데 도덕적 수양은 불필요하다.
 ④ 가, 을: 인(仁)과 예(禮)의 규범은 후천적 노력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⑤ 을, 병: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인위적으로 교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8. 한국 불교 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고른 것은?

가: 일심(一心)과 두 개의 문[二門] 안에 일체의 불법(佛法)이 포함되어 있다. 진(眞)과 속(俗)은 둘이 아니지만[無二], 하나를 고수하지도 않는다. 둘이 아니므로 곧 일심이다.
 을: 자성(自性)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습기(習氣)를 단번에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나가 점차로 익힘으로써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점차로 닦는 것[漸修]이라 한다.

<보기>

ㄱ. 가: 일심을 바탕으로 마음과 별개인 불변의 실체를 확립해야 한다.
 ㄴ. 을: 정(定)은 마음의 본체[體]이고 혜(慧)는 마음의 작용[用]이다.
 ㄷ. 을: 습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직관할 수 없다.
 ㄹ. 가, 을: 대립하는 불교 종파들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환기(桓)는 하얗게 되겠다고 매일 목욕하지 않고, 까마귀는 까맣게 되겠다고 매일 먹물을 칠하지 않는다. 흑백의 우열은 논변할 가치가 없고, 명예를 다투는 위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샘이 말라 물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 주면서 삶을 도모하지만, 이는 강과 호수 안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

- ①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백성의 수는 많게 해야 한다.
 ②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양도 해서는 안 된다.
 ③ 사물 간 귀천 구분은 오직 도(道)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현자(賢者)를 숭상하고 지식을 중시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⑤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갖추고 인위적 규범을 멀리해야 한다.

10. 고대 동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왕(先王)은 그 다툼을 싫어한 까닭에 예(禮)를 제정해 구분을 지었다.
 을: 인(仁)은 하늘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 ① 가: 예(禮)는 외면적 사회 규범일 뿐 국가의 통치 원리는 아니다.
 ② 가: 하늘[天]은 인간에게 악한 본성을 부여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③ 을: 소인(小人)과 달리 군자(君子)는 천한 본성을 타고난다.
 ④ 을: 의로운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⑤ 가, 을: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적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